■ K리그 뚜껑 열어보니

토종 골잡이들 "용병 물렀거라"

프로축구 K-리그가 지난 주말까지 2라운드를 돌았다.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을 빗나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양대 우승후보로 꼽힌 성남과 수원이 주춤한 반면 포항, 서울이 일단 기선을 잡았고 득점 순위는 특급 용병이 아니라 새 얼굴 토종 골잡이들의 잔치다.

▲'용병은 가라' 토종 골 잔치 = 고작 두 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지만 득점 공동선두(2골)에 오른 세 명은 정조국(서울)을 빼면 전혀 예상치 못한 얼굴이다.

네 시즌 11골에 불과했던 이광재(포항)는 이동국(미들즈브러)의 공백을 메우며 두 골을 작렬했고 '챔피언스리그의 사나이' 김형범(전북)도 연속 경기 골로 날았다. 개막골의 주인공 송정현(전남)을 비롯해 권혁진(울산), 이청용(서울), 황재원(포항), 박성호(부산), 우승제(대전) 등 낯선 이름들이 득점자로 올랐다.

전체 33골 가운데 용병이 뽑아낸 골은 9골. 토종의 압도적 우위는 아니지만 초반 국내 선수들의 분발이 예사롭지 않다.

정조국·이광재·김형범 2골 총 33골 중 용병들 9골 기록

▲성남·수원 '쉽지 않네' = 전문가들은 올 시즌 5강으로 성남, 수원, 울산, 포항, 서울을 꼽았다.

그 중에서도 지난 시즌 우승팀 성남과 '레알' 수원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됐다. 막을 올리자 성남과 수원은 약속이나 한 듯 한 번씩 주춤했다. 성남은 개막전에서 전남과 비겼고, 수원도 첫 원정길에서 전북과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두 번 모두 발목을 잡힐 뻔하다 패배를 모면한 경기였다.

반면 포항과 서울의 기세는 심상찮다. 포항의 파리아스식 공격 축구는 경남전에서 세 골을 퍼부어 빛을 발했다. 세뇰 귀네슈 감독의 서울은 유일한 무실점 행진이다.

▲초반 '골 폭죽' 조짐 = 지난 3, 4일 1라운드에선 각 팀들이 지나치게 탐색전을 폈다. 뒷문 단속에 치중한 탓에 일곱 경기에서 고작 13골 밖에 터지지 않았다.

그러나 2라운드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서너골씩 골 탄성이 터져나오는 경기장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 주말 2라운드에선 같은 일곱 경기에 스무 골.

평균 2.35골로 2006년 2.2골에 비해 상승세를 탔다. 다음 라운드부터 더 화끈한 골 퍼레이드를 기대해 볼만 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008 베이징올림픽 축구 아시아 2차 예선 F조 2차전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의 경기를 앞둔 한국 올림픽축구대표팀이 12일(한국시간) 자이드 스포츠 시티 보조구장에서 런닝으로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UAE 원정…1차전 부진 씻겠다"

베어벡호 내일 자정 올림픽 예선
양동현 기용…측면공격에 승부수

첫 판부터 90분 내내 답답함만 안겨줬던 22세 이하(U-22)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중동 원정에서 분위기를 바꾸고 '베이징으로 가는 길'에 디딤돌을 놓는다.

핌 베어벡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대표팀은 14일 자정(이하 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의 알 웨다 스타디움에서 껄끄러운 상대 UAE와 2008 베이징올림픽 아시아 2차 예선 조별리그 F조 2차전을 벌인다.

지난 달 28일 예멘을 안방으로 불러들여 치른 1차전에서 졸전 끝에 가까스로 1-0 승리를 거둔 올림픽호로서는 이번 UAE전이 각 조 2위까지 나서는 최종예선 진출의 분수령이다.

현재 다득점에 밀려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조 2위인 한국은 만일 UAE에 패할 경우 6회 연속 본선행은 물론 최종예선 진출마저 장담할 수 없다.

물론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만 놓고 보면 한국(44위)이 객관적 전력에서 UAE(87위)를 앞선다.

A대표팀 맞대결에서도 7승5무2패로 압도적인 우세다.

하지만 UAE 원정에서 치른 경기에서는 2승2무2패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 게다가 홈 이점을 안은 UAE도 우즈베키스탄과 원정 1차전의 1-2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배수진을 치고 나설 게 틀림없어 쉽지 않은 승부가 될 전망이다.

한국은 팀 공격의 핵 박주영(FC서울)이 지난 예멘전에서 보복성 '배치기 반칙'으로 퇴장당해 이번 UAE전에 뛸 수 없다.

베어벡 감독은 박주영의 부재에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대안 찾기에 고심 중이다.

선수들은 박주영의 공백으로 인한 위기감이 오히려 팀의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분위기를 추스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일본과 평가전에서 이어 예멘전까지 두 경기 연속골을 넣은 공격수 양동현(울산)은 지난 9일 훈련 중 오른쪽 정강이를 다쳤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드러나 코칭스태프가 가슴을 쓸어내렸다.

양동현은 오전, 오후 두 차례 진행되는 팀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베어벡 감독은 이번 UAE전에서 다시 한번 측면 공격에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출국 전 인터뷰에서 "밀집수비가 예상돼 호흡을 잘 맞추고 볼을 빠르게 돌리는 게 필요하다. 특히 측면을 많이 활용하겠다"며 UAE전 해법을 제시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최경주 뒷심 부족 7언더 6위에 그쳐

PODS챔피언십 최종

최종 라운드에서 뒷심이 떨어진 '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가 시즌 첫 우승의 기회를 살려내지 못하고 공동 6위에 머물렀다.

최경주는 12일(한국시간) 플로리다주 탬파베이 이니스브룩골프장(파71·7천230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투어 PODS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3개, 보기 4개를 묶어 1오버파 72타를 치는 부진 끝에 공동6위(7언더파 277타)로 대회를 마감했다.

2라운드에서 선두와 2타차 3위, 그리고 3라운드에서 선두에 1타차로 따라 붙어 대회 2연패와 통산 다섯번째 우승 기대를 부풀렸으나 시즌 세 번째 '톱 10' 진입에 만족해야 했다.

3라운드에서 코스레코드 타이기록(9언더파 62타)을 세우며 공동선두로 올라섰던 46세 노장 캘커베키아는 2005년 캐나다오픈 우승 이후 2년만에 투어 대회 제패의 기쁨을 누렸다.

95만4천달러의 우승 상금을 손에 쥔 캘커베키아는 상금랭킹 7위(131만6천달러)로 수직 상승, 마스터스 출전 기회를 잡게 됐다.

1타를 잃은 앤서니 김(22·나이키골프)은 공동 14위(4언더파 280타)에 그쳤고 위창수(35·테일러메이드)는 3오버파 74타 공동 43위(1오버파 285타)로 밀렸다.

'PODS 우승' 캘커베키아 캐디는 마약 범죄 전과자

12일(한국시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PODS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한 마크 캘커베키아(미국)의 캐디인 에릭 라슨은 11년이나 감옥에서 세월을 보낸 '마약 범죄 전과자'이다.

라슨은 1989년 브리티시오픈과 1995년 벨사우스클래식에서 캘커베키아가 우승할 때 백을 메는 등 전성기를 함께 한 사이.

그러나 라슨은 1995년 돈 몇 푼을 받으려고 마약상의 부탁을 받고 코카인을 운반하다 적발돼 졸지에 마약사범이 됐다.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은 라슨이 수감 생활 11년 만인 지난 2005년 12월 모범수로 가석방되자 캘커베키아는 주저없이 라슨에게 백을 맡겼다.

라슨이 수감되어 있던 동안 자주 면회를 다녔던 캘커베키아는 "출소하면 다시 너를 캐디로 쓰겠다"고 말한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다시 뭉쳐 투어를 뛴 첫해인 지난해에는 '톱 10' 한번에 상금 70만5천 달러로 신통치 않았지만 캘커베키아의 신뢰는 변함이 없었고 올해 두 차례 '톱 10' 진입 이후 마침내 우승을 합작해냈다. /최재호기자 lion@

신백철 '셔틀콕 정상' 올라

후배 박성민 꺾고 금메달
독일 주니어오픈배드민턴

한국 셔틀콕의 기대주 신백철(광명북고)이 2007독일주니어오픈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신백철은 12일(한국시간) 독일 보트로프에서 벌어진 대회 최종일 남자단식 결승에서 대표팀 후배 박성민(인천해양과학고)을 2-1(21-15, 18-21, 21-16)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역시 한국선수끼리 맞붙은 여자복식 결승에서는 장예나(창덕여고)-엄혜원(포천고)이 정경은(성지여고)-최하나(성심여고)에 2-1(16-21, 21-14, 21-16)로 역전승을 거두고 우승했다. 그러나 남자복식 결승에서는 정의석(밀양고)-김영선(진광고)이 인도네시아의 쿠르니아완-사박티에 0-2로 패했다.

스포츠중계

13일(화)

▲종별 태권도선수권(14 : 10·KBS1)

▲프로농구 겨울리그〈KB국민은행-금호생명〉(16 : 50·SBS스포츠)

14일(수)

▲유럽축구 빅매치〈맨체스터 Utd-유럽연합팀〉(04 : 50·MBC)